

木版本 朝鮮全圖

《海左全圖》의 유형 연구

Research on Classification of 《Haezwejeondo》, One of the General Maps of Korea Made by Wooden Plates

양윤정(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rosa0311@hanmail.net)

地圖란 '우리가 살고 있는 地理的 空間을 축소된 그림으로 표현한 것' 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地圖에는 당시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이런 의미에서 古地圖 역시 옛사람들의 공간적 지식과 생활이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地圖는 정치적 목적과 학문의 발달로 크게 발전했고 인쇄술의 발전은 또한 다량 생산이 가능한 木版本 地圖 제작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제한적이었던 地圖의 사용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木版本 地圖의 발전은 '東覽圖' 와 같은 地圖冊에서 시작해 木版本 地圖의 결정체인 金正浩의 《大東輿地圖》로 발전했다. 본 논문은 조선후기 지도의 흐름 속에서 木版本 地圖의 중요성과 대중성 측면을 살펴보고자 했고, 이를 위해 《大東輿地圖》보다 먼저 제작된 木版本 《海左全圖》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 지도 전체 길이가 1m 정도인 木版本 《海左全圖》는 1857년에서 1859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는 정상기의 《東國地圖》 계열의 지도와 유사하며, 여러 종의 지도를 종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山·川·島 등의 자연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서울과 군현에 관한 행정 정보, 군사 정보, 驛을 표시한 교통 정보, 사찰 등의 문화 정보인 인문적인 정보가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여러 기호를 사용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海左全圖》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지도 여백에 있는 註記이다. 주기에는 檀君朝鮮부터 고려까지의 행정구역의 변천과 鬱陵島?對馬島?濟州道 등의 역사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유명한 산과 관동팔경 등의 명승지가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海左全圖》의 판본 연구를 위해 서울대 규장각, 성신여대·영남대 박물관, 경희대 혜정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송실대 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17장의 지도를 사용했다. 이 17장의 《海左全圖》 중 2장의 筆寫本 地圖를 제외한 15장의 《海左全圖》판본을 비교해 본 결과, 木版本 《海左全圖》의 경우 지도의 크기나 형태, 내용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3종류의 판본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분류는 판이 나뉜 위치, 註記에서의 誤字와 글자의 모양, 그리고 지도상에서의 하천과 산, 도 경계선 표현·정보의 추가·섬의 추가 및 삭제·誤字 등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세 종류의 판 유형을 각각 (가), (나), (다)로 유형으로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유형의 경우 지도 전체가 4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판이 평안도 위원 바로 윗부분까지이며, 두 번째 판은 평안도 용강, 그리고 세 번째 판은 충청도 비인 부근까지이다. 주기 부분에 '大清 이

‘大濱’로 잘못 판각되어있고, 다른 두 유형에는 모두 표시되어 있는 薪島嶺의 진보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점, 淸涼山이 淸京山으로 판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일 먼저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먼저 판각된 판이기 때문에 정보상의 오류가 보이기는 하지만 판각의 수준이나 섬세함 등은 나머지 두 유형보다 뛰어나다. (나) 유형의 《海左全圖》도 4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가) 유형과는 달리 첫 번째 판이 평안도 초산에서, 두 번째 판이 황해도 풍천, 그리고 세 번째 판이 전라도 김제 부근에서 나뉜다. 그리고 (가) 유형에서 보였던 오류들이 수정되었고, (가) 유형에 없었던 섬이 반영되어 표시되어 있다. 또한 (나) 유형의 경우, 같은 종류의 판으로 생각되는 지도에서도 섬이 추가되는 등의 차이가 보이는데, 이것은 부분적인 수정이 용이한 木版本 地圖의 장점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다) 유형은 위의 두 유형과는 달리 5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 유형의 세 번째 판이 (다) 유형에서는 경기도 남양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나뉘고 있다. 그리고 (다) 유형의 경우 지도상에 나타난 표현이나 특징이 (나) 유형과 유사하지만, 對馬島까지의 거리 표현은 (가) 유형과 유사하다. 즉, (가) 유형과 (나) 유형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木版本 地圖의 가장 큰 장점은 대량의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크기 1m 정도의 목판본 지도가 여러 본 제작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海左全圖》의 경우, 많은 지리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주기를 통해 현재와 과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지도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경관이 주기에 나타난 지도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海左全圖》는 휴대하고 다니기에 불편함이 거의 없는 크기의 지도이며, 다량 제작이 가능하고, 또한 많은 정보가 수록된 지도로 아마 조선시대 당시 대중적인 지도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후에 이를 모사한 筆寫本 《海左全圖》가 제작된 것으로 보아, 목판본 《海左全圖》는 地圖의 대중성과 地圖의 용이성을 동시에 만족시켰던 지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계속해서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으로 새로운 판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海左全圖》가 지도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